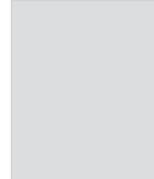


동양고전에서 본 동물과 인간의 관계



박 재 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pjhak@snu.ac.kr



김 창 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박사

I. 서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고기와 계란을 먹고 우유를 마시며 살아왔다. 어디 그뿐이랴? 소의 가죽으로 만든 구두와 양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동물의 뼈로 만든 장신구를 이용해왔다. 또한 우리가 복용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동물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것들이다. 심지어 수의과대학에서는 동물의 질병을 보다 잘 치료하기 위하여 건강한 동물에 고통을 주고 그 고통으로 동물을 구제하는 법을 가르친다. 최근에는 구제역으로 수백만의 우제류 동물들이 살처분되었다. 그렇게 많은 동물을 살처분하면서 고기를 먹어야하며, 그 많은 동물을 희생하면서 안전한 의약품을 개발해야하고, 그 많은 고통을 주면서 의료기술을 위한 동물실험도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비글개는 집에서 기르는 비글개와 같은 개다. 이렇듯 동물을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면서,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갈등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보아 왔을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실마리를 동양고전을 참고로 하여 풀어보고자 하였으며, 동양 고전에서 발췌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한다.

II.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庶民去之，君子存之。《맹자(孟子)·이루하(離婁下)》

•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이 거의 드문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오상(五常)을 말하며 하늘이 명해진 성(性)을 뜻한다. 동물과 사람은 다른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오상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차이를 버려서 동물처럼 오상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군자는 그 동물과 차이나는 점을 보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오상은 무엇인가?

■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脩道之謂教。《중용(中庸)·1장》

• 하늘이 명해진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性)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教)라고 한다.

하늘이 명해진 것을 성(性)이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상(五常)으로서 신(信)은 그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인(仁), 의(義), 예(禮), 지(智)는 각각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는 사단(四端)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상의 유무에 대한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볼 수 있다.

■ 夫禽獸有父子而無父子之親，有牝牡而無男女之別，故人道莫不有辨。《순자(荀子)·비상(非相)》

• 금수는 부모와 새끼 관계는 있지만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없으며 암수는 있지만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리는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 凡人之所以貴于禽獸者，以有禮也。《안제(晏子)》

• 사람이 금수보다 귀한 것은 예(禮)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상중의 예(禮)는 동물에는 없지만 사람에게에는 있는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상중의 의(義)를 기준으로 하여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말하는 구절도 있다.

■ 水火有氣而無生，草木有生而無知，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有知亦且有義，故最爲天下貴也，〈순자(荀子)·왕제(王制)〉

- 물과 불은 기운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이 있으나 지각이 없으며 새와 짐승은 지각은 있으나 의(義)가 없다. 사람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고 또한 의(義)도 있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다.

■ 人而無義，唯食而已，是雞狗也。彊食靡角，勝者爲制，是禽獸也，〈열자(列子)·설부(說符)〉

- 사람이면서 의(義)가 없이 단지 먹기만 할 뿐이라면 그것은 닭이나 개이다. 먹이를 다투느라 뿔을 부딪치고 이기는 자가 통제자가 된다면 그것은 새나 짐승이다.

이 구절에서는 동물에는 지각은 있으나 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물은 고통에 대하여 반응한다. 상처 난 부위에 대해 고통 때문에 또는 그 부분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대처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이나 텃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통의 감각과 두려움을 깨닫는 능력을 동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전에서 통찰한 것이다. 다만 동물들이 의(義)와 같은 자의식은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조선조 중기에 일어난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의 논쟁이 그것이다. 인물성동론(人物性同異論)은 서울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한 낙론(洛論)을 대표하는 이간(李柬, 1677~1727)의 주장이고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호론(湖論)의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주장이다. 이간은 사람과 동물이 다르고 사람들 상호간에도 서로 다른 것은 기질의 차이일 뿐 이(理)를 이루는 태극(太極), 천명(天命), 오상(五常)은 사람이나 동물이 같다고 생각하여 본연지성(本然之性)의 입장에서 사람과 동물의 같은 점을 강조한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다만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반면 호론을 대표하는 한원진은 주장하기를, 이(理)는 태극(太極)과 천명(天命)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람과 동물에서 이(理)는 같으나 기(氣)인 오상(五常)은 사람에게에는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쟁을 살펴보면 동물과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차이는 거의 없는 듯이 생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상을 가지지 못한 점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자(莊子)·덕충부(德充符)에서 말한, “다르다는 점에서 본다면 간과 쓸개도 초(楚)나라와 월(越)나라의

거리지만, 같다는 점에서 본다면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自其異者視之，肝膽楚越也，自其同者視之，萬物皆一也)”라는 구절이 이러한 주장의 차이를 대변해주는 것 같다.

III. 그렇다면 동양의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동물을 어떤 대상으로 보았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첫째는 이용의 대상, 둘째는 교류의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하의 대상으로 보았음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이용대상으로 생각했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 天子社稷皆太牢，諸侯社稷皆少牢，〈예기(禮記)·왕제(王制)〉

- 천자(天子)의 사직에서는 모두 태뢰(太牢)를 쓰고 제후(諸侯)의 사직에서는 모두 소뢰(少牢)를 쓴다.

태뢰(太牢)는 소[우(牛)], 양(羊), 돼지[시(豕)]를 말하고 소뢰(少牢)는 양(羊)과 돼지[시(豕)]를 이른다. 이것은 동물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한 예이다. 또한 동물은 현재에도 마찬가지로지만 의식(衣食)의 주공급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한 예는 고전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본다.

■ 古者丈夫不耕，草木之實，足食也，婦人不織，禽獸之皮，足衣也，〈한비자(韓非子)·오두(五蠹)〉

- 옛날에는 남자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풀과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넉넉하였기 때문이고, 부녀자들이 길쌈을 하지 않았는데 짐승의 가죽이 입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 景公走狗死，公令外共之棺，內給之祭，晏子聞之諫，公曰，亦細物也，特以與左右爲笑耳，晏子曰，君過矣，夫厚籍斂不以反民，棄貨財而笑左右，傲細民之憂，而崇左右之笑，則國亦無望已，且夫孤老凍餒而死狗有祭，鰥寡不恤而死狗有棺，行辟若此，百姓聞之，必怨吾君，諸侯聞之，必輕吾國，怨聚于百姓，而權輕于諸侯，而乃以爲細物，君其圖之，公曰，善，趣庖治狗，以會朝屬，〈안자(晏子)〉

- 경공의 사냥개가 죽자, 경공이 명을 내려 밖으로는 개에게 관을 마련해주고 안으로는 제사를 지내주도록 하였다. 안자가 그 말을 듣고 간언하자 경공이 말하기를, “역시 작은 일입니다. 그저 좌우 신하들과 웃음거리로 삼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안자가 아뢰기를, “임금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거두어들이기만 하고 백성에게 되돌려 주지 않으면서 재물을 버려 좌우 신하들을 웃게 하시다니요. 백성들의 근심을 무시하면서 좌우 신하들의 웃음을 중시한다면 나라가

역시 희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고아나 늙은이는 헐벗고 굶주리는데 죽은 개가 제사를 받으며 흠아비와 과부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데 죽은 개는 관까지 갖추다니요. 행실이 치우친 것이 이와 같음을 백성들이 듣는다면 틀림없이 우리 임금님을 원망할 것이고 제후들이 듣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경시할 것입니다. 원망이 백성들에게 쌓이고 권세가 제후들에게 무시 받는 데도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까. 임금님께서서는 바라건대 이를 헤아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경공이 말하기를, “훌륭합니다”라 하고는 바로 주방장에게 개를 요리하게 하여 조정의 신하들을 회식시켰다.

동물들에게 일을 시켜 농사를 짓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는 사역(使役)으로서의 관계에 대한 예를 들어 본다.

■ 駕馬服牛, 令鷄司夜, 令狗守門, 因其然也. <회남자(淮南子)·태족훈(泰族訓)>

• 말과 소를 부리고 닭에게 야침을 알리게 하며 개에게 문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것의 원래 기능을 따르는 것이다.

■ 漢明帝時, 攝摩騰·竺法蘭, 始自西域以白馬馱經來, 初止鴻臚寺, 遂取此寺名, 創白馬寺. <사물기원(事物紀原)>

• 한(漢)나라 명제(明帝) 시기에 섭마등(攝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처음으로 서역(西域)에서 백마(白馬)에 불경(佛經)을 싣고 왔다. 막 도착하여 홍려시(鴻臚寺)에 머물렀기 때문에 마침내 이 관서 이름을 따서 백마사(白馬寺)를 창건하였다.

동물의 지혜(知慧)를 이용한 예도 있다.

■ 老馬識途 : 管仲·隰朋從桓公伐孤竹, 春往冬反, 迷惑失道. 仲曰, 馬之智可用也, 乃放老馬而隨之, 遂得道. <한비자(韓非子)·세림(說林)>

• 관중과 습봉이 환공을 따라 고죽국을 쳤는데, 봄에 갔다가 겨울에 돌아오면서 길을 잃었다. 관중이 말하기를, “말의 지혜를 이용할만합니다”라고 하자 이에 늙은 말을 풀어놓고 그 뒤를 따라가서 마침내 길을 찾았다.

두 번째로 공생, 반려, 배려와 같은 교류 대상으로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공생(共生)의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를 살필 수 있다.

■ 小國寡民, … 安其居, 樂其俗,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노자(老子)·80>

• 작은 나라와 적은 인구, … 자신들의 거처를 편안히 여기고 자신들의 풍속을 즐기며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린다.

■ 夫至德之世, 同與禽獸居, 族與萬物並, 惡乎知君子小人哉. <장자(莊子)·마제(馬蹄)>

• 지극한 덕이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금수와 함께 살았고 만물과 무리 지어 함께 했으니 어찌 군자나 소인을 알았겠는가.

반려(伴侶)의 예로서는,

■ 雞窗(雞窗) : 晉宋處宗嘗買得一長鳴雞, 愛養甚至, 恒籠著窗間, 雞遂作人語, 與處宗談論, 極有言智, 終日不輟. 處宗因此言巧大進. 後以雞窗指書齋. [송(宋) 유의경(劉義慶) <유명록(幽明錄)>]

• 진(晉) 송처종(宋處宗)이 장명계(長鳴雞) 한 마리를 샀는데 사랑하고 보살핌이 매우 지극하여 항상 새장에 넣어 창가에 두고 지냈다. 닭이 마침내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어 송처종과 담론을 하는데 말의 재치가 있어 종일토록 멈추지 않았다. 송처종이 이 때문에 말재주가 크게 늘었다. 뒤에 계창(雞窗)은 서재(書齋)를 가리키게 되었다.

■ 馬師皇者, 黃帝時馬醫也. [한(漢) 유향(劉向) <열선전(列仙傳)·마사황(馬師皇)>] - 後世尊爲獸醫鼻祖.

• 마사황(馬師皇)이라는 자는 황제(黃帝) 시기의 말 의사였다. - 후대에 수의사(獸醫師)의 원조로 존경받았다.

배려(配慮)의 예로서는,

■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牛何之? 對曰將以饗鍾. 王曰舍之, 吾不忍其軀觶若無罪而就死地. …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是以君子遠庖廚也. <맹자(孟子)·양혜왕상(梁惠王上)>

•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당하로 지나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께서 이를 보고, “소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으시자 대답하기를, “장차 종(鍾)의 틈을 바르는 데 쓰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왕께서, “놓아주어라. 나는 그것이 두려워하며 죄도 없는데 사지(死地)로 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 군자는 금수에 대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차마 그것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죽으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니 이 때문에 군자는 푸주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 仲尼之畜狗死, 使子貢埋之, 曰, 吾聞之也, 敝帷不棄, 爲埋馬也. 敝蓋不棄, 爲埋狗也. 某也貧, 無蓋, 於其封也, 亦予之席, 毋使其首陷焉. <예기(禮記)·단궁하(檀弓下)>

• 공자의 기르던 개가 죽자 자공으로 하여금 그것을 묻어주게 하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들으니, 낡은 휘장을 버리지 않는 것은 말을 묻기 위한 것이고 낡은 수레 덮개를 버리지 않는 것은 개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 나는 가난하여 수레 덮개가 없으니 그것을

문을 때 또한 방석을 깔아주어 그 머리가 흙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 楊朱之弟曰布，衣素衣而出，天雨，解素衣，衣緇衣而反。其狗不知，迎而吠之。楊布怒將扑之，楊朱曰，“子無扑矣。子亦猶是也。嚮者使汝狗白而往，黑而來，豈能無怪哉。《열자(列子)·설부(說符)》

• 양주(楊朱)의 동생인 양포(楊布)라고 하는 자가 흰 옷을 입고 나갔다가 비를 만나 흰 옷을 벗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왔다. 그의 개가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가서 짖어댔다. 양포가 화가 나서 그 개를 때리려고 하자 양주가 말하기를, “너는 때리지 말라. 너도 또한 그 개와 같을 것이다. 앞서서 가령 너의 개가 흰 개로 나갔다가 검어져서 돌아온다면 어찌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겸사(謙辭), 무시(無視), 경계(警戒)와 같은 평범 대상으로서의 동물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겸사(謙辭)의 예로서는,

■ 견마지로(犬馬之勞)：願效犬馬之勞，跟隨同去。

《수호전(水滸傳)》 제 58회

• 바라건대 보잘것없는 노력을 다하고자 뒤따르며 함께 가고 싶습니다.

■ 견자(犬子) 또는 돈자(豚子)는 자기의 자식을 겸하하여 호칭할 때 사용하였다.

무시(無視)의 예로서는,

■ 人之有道也，飽食煖衣，逸居而無教，則近於禽獸。聖人有憂之，使契爲司徒，教以人倫，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맹자(孟子)·등문공상(滕文公上)》

• 사람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밥을 배불리 먹고 옷을 따뜻하게 입은 채 편안히 지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진다. 성인이 또 이것을 근심하여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 鸚鵡能言，不離飛鳥。猩猩能言，不離禽獸。今人而無禮，雖能言，不亦禽獸之心乎。《예기(禮記)·곡례상(曲禮上)》

• 앵무새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새에 지나지 않고 성성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금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사람이면서 예(禮)가 없다면 비록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한 금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경계(警戒) 대상의 예로서는,

■ 當堯之時，天下猶未平，洪水橫流，汜濫於天下。草木暢茂，禽獸繁殖，五穀不登，禽獸逼人，獸蹄鳥跡之道，交於中國。堯獨憂之，舉舜而敷治焉。舜使益掌火，益烈山澤而焚之，禽獸逃匿。《맹자(孟子)·등문공상(滕文公上)》

• 요임금 시대에 천하가 아직 다스려지지 않아 홍수가 멋대로 흘러 천하에 범람하였다. 초목이 무성하고 금수가 번식하였으며 곡식이 익지 않고 금수가 사람을 핍박하여 짐승과 새 발자국의 길이 나라 안에 교차하였다. 요(堯)임금이 홀로 이를 걱정하시어 순(舜)을 등용하여 다스림을 펴게 하자 순이 익(益)으로 하여금 불을 맡게 하였고 익이 산택에 불을 질러 태우니 금수가 도망하여 숨었다.

이상과 같이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숙고하면서 동물을 이용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배려도 하였다. 동물에 대한 서양의 대표적인 고찰은 “잔카제저 동물에 대한 예의” (윤은진 역)에 다음과 같이 잘 요약되어 있다. “인간과 동물에 대한 고찰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한다. 만물의 서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뿌리 깊은 사고로부터 동물은 오로지 인간의 먹이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성적인 남자가 덜 이성적인 여자를 지배해야 하며, 이성적인 주인이 비이성적인 노예를 지배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동물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7세기의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동물과 인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큰 차이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동물에겐 영혼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혼은 사고와 이성뿐 아니라 모든 의식까지 통제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사고와 인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18세기에 이르러 칸트는 동물은 존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시대의 제레미 벤담은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한 인간이 의무를 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적인 사고는 20세기 피터 싱어에 이르러 동물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강한 주장을 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서양 철학자들은 고통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동양철학에서는 불인지심(不忍之心)이라는 면을 강조했다. 접에서 생각해보면 동서양을 넘어 동물에 대한 인간의 마음은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출발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